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

세대 간 단절(연결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)

컨셉 – 동인지

문송합니다.

지금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기성 정치인 등의 목소리, 주장에 등장하는 청년만 있을 뿐이다.

<뉴필로소퍼>, <매거진 B> 잡지

컨셉은 철학으로, 철학으로 밀고 나가자

막연하게 힘들다, 말고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.